

 보 도 참 고 자 료 			
금융위원회	보도 2017.8.2(수) 16:30 이후 배포 2017.8.2(수)	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(02-3145-8020)		홍 석 린 팀장 (02-3145-8040)

제 목 :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8.2)」 중 금융규제 강화 관련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간담회 개최

□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8.2)」에 따른 LTV·DTI 규제강화 추진
(→ 8.2일 임시금융위 보고 및 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)

① 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은 LTV·DTI 한도를 각각 40% 적용

* 다만, 서민·실수요자의 경우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10%p씩 완화 적용

②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·DTI 비율을 10%p씩 강화

※ 규정변경 예고 단축, 국조실·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“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및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”해 줄 것을 은행장, 협회장 등에게 당부

➡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금융권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에 걸쳐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할 계획

1.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개최(8.2일, 14:00)

□ 금융위원회는 '17.8.2(수) 임시회의(14:00)를 개최하여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8.2)」에 따른 LTV·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*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음

* 은행·보험·여전·상호금융·저축은행업 감독규정

*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 예정(행자부)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

○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, 先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

○ 금융위는 국조실,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

○ 금감원은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前까지,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,

-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,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할 것을 당부

2. 금융권 간담회 개최(8.2일, 16:30)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장, 협회장, 주택금융 공사 사장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,

○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,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요청

◆ 일시·장소 : '17.8.2(수) 16:3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◆ 참석자 : 금융위원회 위원장(주재), 금융감독원장, 신한·우리·국민·하나·농협·기은 등 6개 주요 은행장, 은행·생보·손보·저축은행·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장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,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

[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]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·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,
 -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
 -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,
 -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부채가 누증되면,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
- 금융위원장은 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·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”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다음 사항을 금융권에 당부
 -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,
 -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,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
 -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
-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‘가계부채 종합대책’도 8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힘
- 또한,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,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, 금융제도·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,

-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편하겠다고 강조
- 이를 위해, 8월중 「생산적 금융」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

[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요지]

□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

-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각별히 노력해 주고,
- 일선 창구 등에서 이번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
- 아울러,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지만,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

□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LTV·DTI 적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

- 각 금융업권별로 ‘합동대응팀’^{*}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준비상황,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,

^{*} (은행권 예시) 금감원, 은행연합회, 은행권 업무 담당자 등으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은행권 합동대응팀 가동(8.3일~)

-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

※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

<별첨1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

<별첨2>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

<별첨3>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대책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